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達하고 있는 點을 說明하였다.

아울러 基準認證 等 關聯된 問題에 있어서는 「市場開放問題 苦情處理推進本部」(O.T.O)를 活用하여 달라는 助言이 있었다.

6. 韓國側의 強力한 要望인 對韓購買使節團 派遣에 있어서 日本側은 日本의 關係當局을 비롯하여 地方商工會議所 等에 對하여 積極的인 協力을 要請함과 同時에, 서울 國際貿易博覽會(SITRA '84)의 開催를 契機로 購買使節團의 派遣이 實現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을 約束하였다.

그리고 韓日間의 姊妹都市活動을 從來의 文化面에서의 交流만에 그치지 않고, 地方產品의 交易에 까지 擴大시키도록 相互協力해 갈 것에 合意하였다.

7. 한편, 貿易增進의 觀點에서 日本側으로부터 在韓日本商社 等の 스테이터스, 오파 商에 對한 標準手數料率課稅, 在韓企業의 日本人 任職員에 對한 所得稅 査定, 外國製品의 廣告費에 對한 關稅 課稅問題 等の 改善 및 輸入先多邊化制度의 撤廢에 對한 要請이 있었다.

韓國側은 이러한 問題들이 漸進的으로 緩和 내지 改善되어 가고 있음을 說明하고, 加一層의 改善이 이루어지도록 韓國

政府에 傳達하기로 約束하였다.

8. 海運協力에 關해, 日本側으로부터 韓國海運振興法施行令에 따른 웨이버制度를 撤廢하여 自由化政策이 海運에도 適用될 수 있도록 要望하였다. 韓國側은 韓國海運業의 競爭力이 아직도 充分하지 못하다는 趣旨를 說明하고 日本側의 理解를 求하였다.
9. 韓國側으로부터 國交正常化 滿20周年記念 行事準備委員會를 韓日·日韓兩經濟協會內에 設置하자는 提案이 있었고, 日本側은 官民協同으로 이미 發足된 記念行事懇談會와 調整한 然後에 早速하고도 前向的인 姿勢로 檢討할 것을 約束하였다.
10. 兩國經濟交流 및 相互理解의 基盤이 되는 教育·文化交流의 一環으로서 서로 보다 많은 留學生을 交換할 것을 兩國의 政府에 建議하는데 合意하였다.
11. 다음 會議는 來年봄 大韓民國에서 開催하는데 合議하였다.

1984年 4月 7日

韓國代表團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團長 日 高 輝

第 17 回 共同聲明(1985年)

第1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5年 4月 10일부터 12일까지 大韓民國 慶州에서 開催되었다.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77名, 日本側에서는 日高輝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8名의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今年은 韓日·日韓 國交正常化20周年이 되며 또 最近의 兩國 首腦의 相互公式訪問을 契機로 하여 韓日·日韓 關係의 緊密化가 깊어지고 있으며 이 協力關係를 한층 促進시키는 것이 兩國經濟界의 責務라는 것에 認

識을 새로이 하였다.

兩國間 經濟交流의 着實한 擴大는 相互의 經濟發展에 크게 貢獻하는 것이라는 共通의 理解에 立脚하여 貿易의 擴大均衡, 技術交流의 促進, 汎國民의 信賴關係 強化를 爲한 人的交流等を 幅넓게 着實히 深化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데 對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아 이를 爲하여 韓國으로부터의 大規模 對日輸出促進國의 派遣, 日本으로부터의 對韓投資調查團의 派遣, 靑少年交流等の 實施에 對하여 原則적으로 合意하였다.

1. 兩側 團長의 人事에 이어 兩側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韓國側은 日本의 韓國에 對한 技術協力 및 經濟協力は 韓國經濟를 一層 發展시키는데 貢獻할뿐 아니라 兩國間의 貿易擴大均衡等を 通하여 日本經濟의 發展에도 寄與하고 나아가서는 太平洋圈諸國의 經濟發展에 도움이 된다는 點을 強調했다. 日本側은 兩國關係는 새로운 飛躍을 向한 跳躍台에 서 있으며 2,000年代에는 새로운 相互補完의 乃至는 競爭의 協調關係가 形成될 것이라는 展望에 立脚하여 이를 爲한 相互信賴關係의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하는 것이 重要하며 太平洋圈諸國과의 關係強化와 이에 依한 同地域의 活性化가 兩國經濟의 安定을 爲한 重要な 基盤이 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2. 大韓民國 政府當局으로부터 韓國의 外國人 投資制度가 1984年 7월에 改訂되었고 또한 繼續해서 한층의 開放體制로 移行시키도록 努力하고 있다는 뜻의 說明이 있었으며 韓國에 있어서의 投資環境의 改善은 兩國經濟協力關係를 한층 發展시키는데 歡迎할만한 것이라는 높은 評價를 兩側이 하였다.

또한 同制度의 說明에 關聯하여 日本側

으로부터 外資導入法과의 關聯에 있어 中小企業調整法이 開放政策에 따른 形態로 運用되도록 하여 달라는 要望이 있었다. 이에 對하여 韓國側은 이 方向에 따라 關係當局에서 現在 檢討中이라는 回答을 하였다.

3. 下記의 4個專門委員會 合同會議의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採擇되고 各委員會의 活動이 더욱 活潑해진 것을 評價하였다.

(1) 第12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1985年 2月, 서울)

(2) 第1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4年 5月, 日本賢島)

(3) 第5回 韓日·日韓經濟協力 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1985年 9月, 日本筑波)

(4) 第3回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5年 3月 東京)

4. 1985年 3월에 日本國 東京, 名古屋, 大阪에서 盛況裡에 開催된 韓國의 外國人投資制度 說明會에 對한 日本側의 協力에 對하여 韓國側으로부터 深甚한 謝意가 表門되었다. 또 韓國側은 日本의 對韓投資促進을 爲하여 對韓投資調查團을 派遣토록 要請하였으며 日本側은 이에 對하여 派遣이 實現되도록 肯定的이며 積極적으로 檢討할 것을 約束하였다.

5. 兩側에 設置된 技術協力 斡旋窗口를 통한 技術移轉의 成果를 올리기 위하여 보다 効果의인 方法, 內容을 새로이 研究하여 이의 活性化를 꾀할 것에 合意하였다.

6. 兩國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1984年 11월부터 韓國技能工의 日本研修가 實施되어 받아들인 企業의 協力에 依하여 技能習得뿐 아니라 兩國의 相互理解를 깊이 하는데 多大한 成果가 있었다는데 對하여 韓國側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이 初年度の 實績을 바탕으로 韓國側으로부터 2次年度以後, 보다 많은 技能工을 派遣하고 싶다는 要請이 있었다. 이에 對하여 日本側은 初年度の 成功이 優秀한 派遣技能工의 熱意와 받아들이는 企業의 誠意에 힘입은바가 크다고 하여 이를 높이 評價함과 同時에 今後에도 研修計劃의 擴充에 積極的인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約束하였다.

7. 第1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合意에 따라 日本側이 大規模 訪韓國 輸入等 促進團을 派遣한데 對하여 韓國側은 謝意를 表明하고 이의 後續措置를 目的으로 兩側에 市場協議會가 設置된 것을 兩側 모두 評價하였다. 韓國側으로부터 今年 5월에 大規模 對日輸出促進團을 派遣하겠다는 提案이 있었고 日本側은 韓國의 對日輸出이 한층 促進되도록 이를 받아들일 態勢을 갖추는 것을 約束하였다. 또한 韓國側은 同 輸出促進團의 成果를 보아 後續 派遣할 境遇의 日本側 協力을 要望하였다.

8. 海運協力에 關하여, 日本側은 韓美定期航路 貨物積取에 있어서의 連會員各社에 協力を 要請하셨습니다. 그리하여 結局 第1陣 31名の 受容先으로 17個社가 決定되어 3個月間의 研修가 實施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들 將來가 有望한 技能工諸君들이 各各 職場에 돌아간뒤 製品의 品質向上이나 國際競爭力強化의 核心이 되어 周圍에 技術向上의 테두리를 擴大시켜 나가기를 念願하고 있습니다. 日韓經濟協力에 있어서 저희들은 韓國産業의 基盤이 되는 中小企業의 技術水準을 向上시키고 基礎的인 技術의 充實化를 期하는 것이 至극히 緊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基礎的인 技術의 導入 및 普及이 全斗煥大統領의 國政演說에도 나타나 있듯이 韓國經濟의 根幹을 強化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도 技能工研修計劃의 次한층의 擴充을 위해 民間의 立場에서 積極的으로 協力할 것입니다.

그리고 第1陣 研修人員에 對해 韓國側이 當初 希望한 數보다 적다는 不滿이 一部 韓國側에 있다고 듣고 있어서 한마디 附言하겠습니다.

韓國側에서 希望하신 企業들에게는 各 社內의 事情이 있는바, 例컨대 該當技術이 없거나 있어도 그 技術은 外國으로 부터의 導入技術이어서 第三者에게는 提供할 수 없는 것이거나 或은 韓國의 다른 企業과 技術提携가 되고 있는 것, 또 現在 다른 企業과 技術提携가 交渉中에 있는 것, 나아가서는 極甚한 不況으로 研修生을 받아들일 餘裕가 없는 것, 이와는 反對로 時期가 公교롭게도 超奔忙期에 겹쳐서 物理的으로 受容餘裕가 없는 것, 그리고 社內에 受容施設이 없는 것 등 個個의 各社의 事情을 들어보면 不得已한 理由로 拒絶한 케이스뿐입니다. 또 韓國側의 事情으로 途中에 キャンセル된 케이스도 웨이버適用上, 한층의 配慮를 要請하였다. 이에 對하여 韓國側은 定期船同盟의 行動規範에 關한 協約에 따라서 規制되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基本立場을 밝히고 日本도 同協約을 批准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定期船積取問題가 解決될 것을 希望함과 同時에 兩國의 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檢討할 것을 約束하였다.

9. 韓日·日韓 國交正常化 20周年을 맞이하여
 - i) 兩國의 學者, 專門家를 招聘하여 「韓

- 日經濟交流」의 實績과 將來(假題)에 對한 심포지움을 韓國에서 開催하고
- ii) 兩國의 友好關係를 깊이하기 爲하여 靑少年 交流를 實施하기 爲하여 兩側에 實行委員會를 設置하여 具體的인 計劃을 만들어 實現시키는 方向에서 合意하였다.

10. 다음의 會議는 來年봄 日本國에서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다.

1985年 4月 12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 團長 日 高 輝

第18回 共同聲明(1986年)

第18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6年 4月 9일부터 11일까지 日本國 東京에서 開催되었으며,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4名, 日本側에서는 杉浦敏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82名の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이번 會議는 日韓經濟協會가 設立25周年을 契機로 새로운 任員體制下에서 社會法人化를 實現한 뒤 처음 맞는 合同會議라는 點에서 韓國側으로부터 祝賀의 뜻이 表明되었고 日本側은 이에 對해 謝意를 表明하였다. 會議는 始終 友好的인 雰圍氣속에서 進行되어 內實있는 成果를 거두었다.

于先 兩側은 國際經濟環境이 急激히 變化하고 있고 韓國經濟의 加一層의 飛躍과 日本經濟의 一層의 國際化가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國交正常化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韓日經濟關係도 새로운 展開을 向한 轉機를 맞고 있다는데 認識을 새로이 하였다.

이와같은 共通認識위에서 來年부터 시작되는 韓國의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의 重點施策에 맞춰 가면서 投資 및 技術協力の 促進, 貿易의 擴大均衡, 相互信賴關係의

強化를 위한 人的交流 등을 建設的이고도 前向的으로 推進시켜 나가는 것이 兩國經濟의 發展을 위해서 重要하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아시아·太平洋時代의 到來에 크게 貢獻하게 될 것이라는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이에 따라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調查團의 對韓派遣, 訪日投資誘致團의 派遣, 部品開發協力團의 交流,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 靑少年交流, 서울올림픽에 對한 協力 등을 實施하는데 原則的으로 合意하였다.

1. 兩側團長의 人事에 이어 兩側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日本側은 다른 나라들의 繁榮없이는 日本의 繁榮도 있을 수 없으며, 오늘날의 國際情勢下에서 日本經濟는 積極的인 産業調整을 推進하여 國際協調型的인 産業構造로 轉換시켜 나가야 한다고 指摘하고 그러한 變化가 韓日經濟關係를 더욱 다이 나막한 것으로 만들며, 兩國間의 水平分業을 加速化시켜 보다 바람직한 競爭的協調關係를 만들게 되리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韓國側은 現在 外資導入規制의 緩和,